



최동순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한국구술인물사② / 전 재 성 빠알리성전협회 회장

가명 쓰며 '민중불교론' 기고해

1977년 <대화> 폐간호(10월호) 표지에는 큼지막하게 <민중불교론>이 보인다. 월간 <대화>는 크리스찬아카데미에서 발행한 잡지이다.

요주의 인물인 전재성 이름을 피해 전서 암이라는 필명을 사용했다. 글의 파급효과는 예상외로 컸다. 민주화운동의 불모지였던 불교계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던 것이다. 유신독재에 항거하는 민주화운동에 비로소 불교인들이 뛰어들기 시작한 계기를 제공했다.

1970년대 중반 대불련 활동을 통해 '민중' 개념이 수용된 과정을 전재성의 구술에서 들어본다. 다음 구술은 민청학련 가담 후 석방돼 대불련 회장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서울활동이나 조직 활동은 원래는 체질에 안 맞아요. 싫어했는데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회적인 대학살 일반에 있어서 사회적인 정의랄까 이런 10월 유신 이후에 장기 집권 음모라든가 또는 비민주화

되는 그런 사회적인 이런데 민중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제가 또 거기에서 활동을 하다가 (감방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니까 뭐 전부 와가지고 불교 쪽에서는 제가 회장이 되어 된다고 그러가지고는 선거 운동에 자원봉사자가 너무 많았어요. 대불련 (회장) 선거운동을 그 때 광주에서 했는데 그때 서울대 불교학생회니 또 서울 지역에 있는 고대나 다른데 불교학생회 동대 이런데서 다 와 가지고 선거운동을 하는데 그 가담을 저를 위해서 다 선거운동을 했죠. 그러가지고 본의 아니게 제가 대불련 회장이 된 거예요."

대불련 회장이 된 전재성은 1975년 봄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민청학련을 주도했던 여익구가 석방됐다. 전재성은 강창일의 소개로 여익구를 만났다. 이 때부터 전재성은 70년대 중반 불교운동이 싹트는 현장에 있게 된다. 여익구 등과 함께 고려대 부근의 안암동 대원암에서 자주 모였다. 이른바 '민중불교회' 서클이다.



민중불교론. 1976년 8월 발표.

전재성은 대불련 회장 자격으로 고은, 황석영, 고준환 등과 함께 독서클럽에 참여했다. 또 전재성은 상계동 정우 스님(현 구룡사 주지)이 주지로 있던 작은 사찰에서 여익구, 고준환 등과 함께 시국에 관해 토론했다고 구술한다.

특히 4월에는 서울대 농대생 김상진이 할복해 자살하는 장면을 현장에서 목격했다. 김상진은 수원에 위치한 서울대 집회에서 민주화를 외치며 준비한 칼로 자신의

배를 찔러 자살했다.

대원암 탄허 스님을 중심으로 여익구와 함께 고은, 황석영, 전재성 등 모임이 이어지자 수사 당국은 처음부터 이를 면밀히 관찰했다. 당국은 국가변란을 모의했다는 이유로 여익구와 전재성 두 사람을 다시 구금했다.

"개운사(대원암)에서 좀 몇 차례 모임을 가졌죠. 가졌는데 그 때도 뭐 구체적으로 활동했다기 보다는 불교가 또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이런 자각들이 있었고 뭐 그래서 모였는데 긴급조치나 민청 관련된 사람들이 모이니가 당국에서 주시를 한 거예요. 주시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렇게 모임 인 걸 그걸 또 이렇게 종교단체가 무슨 뭐 연합을 해가지고 무슨 뭐 국가적인 그런 뭐 그 변란을 꾀하려고 한다는 식으로 엮은 거죠. 잘못 엮어진 건데 하여간 그러가지고 그 또 저하고 아마 여익구씨하고 중부서에서 한 두 달 있었던 거 같아요. 중부서에서."

문무왕의 불교신앙과 문화유산 ③ 화엄사상

의상의 화엄종과 화엄심찰

통일신라시대에 가장 화려했던 불교 사상은 화엄사상이다. 의상 대사의 중국 유학을 통해 이 땅에 전해진 화엄사상은 불교의 새롭고 화려한 모습을 보여준다. 태백산의 부석사(浮石寺), 원주의 비마라사(毘摩羅寺), 가야산의 해인사(海印寺), 비슬산 옥천사(玉泉寺), 금정산 범어사(梵魚寺), 남악산 화엄사(華嚴寺) 등이 바로 그러한 흔적들이다.

화엄사상의 가장 흥미로운 점은 신앙적 내용이다. 화엄사상의 중심사찰인 부석사에는 <화엄경>의 주존불인 비로자나불이 아닌 아미타불이 모셔져 있다. 이는 화엄사상이 서민불교를 지향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신라불교의 특징은 '신라유연국토설(有緣國土)' 또는 '신라불국토설(新羅佛國土)'으로 말한다. 이는 신라가 오랫동안 불교와 인연을 맺고 부처님 나라라는 신라인들의 믿음과 더불어 불교가 원효와 의상 대사를 통해서 일반 서민층에 열려있었다는 사실과 많은 연관이 있다.



황복사지 삼층석탑.

은 신라 문무왕(재위 661~681) 때 건립됐지만, 현재에는 전하지 않는다. 지금의 건물은 고려 우왕 2년(1376)에 다시 건립돼, 광해군 때 새로 단청한 것이다. 이어 1916년에 해체·수리 공사를 했다. 규모는 앞면 5칸, 옆면 3칸으로 지붕은 옆면이 여덟 팔(八)자 모양인 팔작지붕이다. 특히 지붕 처마를 받치기 기둥은 주심포 양식을 취해, 주심포 양식의 대표적인 건물로 평가 받고 있다.

의상 대사의 흔적은 경주 황복사 터에서도 찾을 수 있다. 황복사는 의상 대사가 출가한 사찰이자, 부석사를 세우기 전에 머문 곳이다. 이곳에는 시대는 뒤지지만 통일신라 초반의 대표적인 황복사지 삼층석탑이 남아 있다. 탑은 의상 대사가 이곳에 머물 때, 지어지지 않았다. 탑은 의상 대사 이후 효소왕 1년(692)에 세워지고, 효소왕의 뒤를 이은 성덕왕이 즉위한 지 5년만인 706년에 사리와 불상 등을 다시 탑 안에 넣어 왕앙을 보여주는 무량수불을 모시고, 동해 낙산에는 관음의 도량을 세우는 모습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상 대사가 문무왕의 명으로 676년에 장건한 부석사는 그의 사상과 신앙이 숨 쉬고 있다. 부석사는 의상 대사가 당나라 유학을 마치고 귀국할 때, 그를 흠모한 여인 선묘가 응모로 변해 이곳까지 따라와 줄곧 의상 대사를 보호하면서 절을 지을 수 있게 도왔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부석(浮石)'이라는 이름은 이곳에 숨어 있던 도적떼에 선묘가 바위를 변해 이들을 물리친 후 무량수전 뒤에 내려앉았다는 데서 유래했다. 한국의 고건축을 대표하는 무량수전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신라 화엄사상 서민불교 지향 부석사는 무량수불, 동해 낙산 관음 도량 통해 확인 가능

신라의 화엄사상은 중국의 화엄종과는 다른 실천을 기반으로 한 불교신앙이었다. 이는 신라가 화엄심찰을 전국에 세운 것과 더불어 부석사에 정통신앙을 보여주는 무량수불을 모시고, 동해 낙산에는 관음의 도량을 세우는 모습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상 대사가 문무왕의 명으로 676년에 장건한 부석사는 그의 사상과 신앙이 숨 쉬고 있다. 부석사는 의상 대사가 당나라 유학을 마치고 귀국할 때, 그를 흠모한 여인 선묘가 응모로 변해 이곳까지 따라와 줄곧 의상 대사를 보호하면서 절을 지을 수 있게 도왔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조민기 작가 · 칼럼니스트

제석(帝釋)과 함께 떠나는 신화(神話) 여행④

제석의 탄생 2

암바팔리에 비해 제석의 전생은 다소 심심하다. 제석의 전생을 궁극해 한 이는 린차비족의 왕자 마할리아였다. 부처님께서 바이살리에 계실 때 설법을 들으러 왔던 그는 부처님이 제석을 개인적으로 만났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부처님께서 설법 하실 때마다 제석은 하늘에서 일기천적들을 싣 데리고 내려와 들었다거나, 설법을 마친 뒤 경전을 수호하기를 맹세했다는 등의 이야기가 경전마다 등장한다. 그러나 부처님 생전에도 이런 의문을 가진 사람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가 부처님께 여쭙어 본 것은 요즘 식으로 하자면, "부처님, 하느님하고 만나신 적 있지요? 어떤 분인가요? 무슨 복을 지어주셨습니까?" 정도였다. 진심으로 스스로도 복을 받는 방법을 알고 싶어 제석처럼 큰 복을 받은 이의 과거가 궁금했을 뿐, 딱히 부처님을 곤란하게 만들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다. 왕자라는 신분이 다소 유치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의 질문에 약간의 무게감을 실어주었음지도 모른다.

부처님은 그의 마음을 마치 안 것처럼 거리낌 없이 말씀해준다.

"마할리아, 나는 제석천을 잘 안다. 또 그가 어떻게 제석천이 되었는지도 잘 안다." 이 얼마나 안심이 되는 답변인가. 귀를 쫓듯 세우자 부처님께서서는 술술 다음 이야기도 생생하게 말씀해주신다.

도리천의 주인이자 신들의 왕인 제석의 전생은 마찰라라는 마을에 살던 젊은 청년 '마가'였다. 마가는 마찰라 마을의 길을 닦아 사람들을 불편하지 않도록 했고, 청소를 하기도 하고, 누구나 쓸 수 있는 공간도 만들었다. 그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남을 위해 기꺼이 기쁘게 이 일을 했다.

하루는 열심히 길을 청소하는 마가를 눈여겨 본 젊은이들이 그에게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마가가 대답했다.

"나는 지금 천국으로 가는 길을 닦고 있습니다."

마가의 대답에 한 마디로 꽃혀버린 32명의 젊은이들이 그를 따랐다. 또한 마가는 스스로 7개의 계율을 정해 평생 그것을 지켰다. 그 7개의 계율은 이랬다.

첫째, 부모님을 봉양한다.



삼화 · 김영수

둘째, 웃어른을 존경한다. 셋째, 점잖게 말한다. 넷째, 험담하지 않는다. 다섯째, 탐욕을 갖지 않으며, 인심을 후하게 한다.

여섯째, 진실을 말한다. 일곱째, 성내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억제한다.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의 한 페이지를 읽는 것처럼 구구절절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르다. 몇 가지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 막상 나 자신의 생활과 직결되는 내용이며 자신과의 약속을 흐트러짐 없이 지키기란 생각보다 어렵다.

마가는 이것을 평생 지켰고 32명의 젊은 청년들의 모범이 되어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다.

부처님이 출현하지 않은 세상이었지만, 마가는 스스로 양심을 걸고 이런 선행과 바른 행동을 실천한 덕분에 죽은 뒤 신들의 왕 제석으로 환생한다.

부처님은 마가 시절의 제석을 만난 적이 없지만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다. 이를 알아주는 부처님이 있어 도리천에서 나른하게 행복한 생활을 누리던 제석도 새삼 할 일이 생기고, 더 좋은 일을 하여 복을 받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을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앞으로도 본인이 하기 나름이라는 존철살인의 한 마디로 그의 전생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한다.

"마가는 선한 일을 하며 깨어있어서 신들의 왕이 되었다. 깨어있으면 언제나 칭송받으며, 그러나 흐트러지면 언제나 비난 받는다."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엔 따뜻하게~ 4계절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네츰컬 삼베 멍석 카페트

오직~ 현불샵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농치지 마세요!! *전제품 무료배송*

◇ 원산지 : 한국

■ 삼베 멍석 카페트

- ◇ 크기 : 가로 280× 세로 180 × 두께 약 1cm
- ◇ 용도 : 법당, 대청마루, 거실
- ◇ 가격 : 330,000원

■ 삼베의 기능 및 특성

- 1.항균기능 (99.9% 방충 탈취 기능)
 - 진득이, 곰팡이균 발생 원천 봉쇄, 위생성 우수
- 2.수분 흡수 및 발산 (면의 42배)
- 3.온도조절 기능 (여름에 따뜻하고 겨울에 따뜻한 특성)
- 4.난연성, 내열성 및 내마모성 우수
- 5.자외선 차단 기능 (99.9% 차단)
- 6.전자파 차단 기능 (86% 차단)
- 7.적외선 흡수 기능, 혈액, 알파, 감마선의 비투과성

■ 삼베 매트 (大) 가로 180 × 세로 70 × 두께 0.8cm ⇨ 120,000원 1인용 매트로 최적!

■ 삼베 매트 (中) 가로 75 × 세로 50 × 두께 0.8cm ⇨ 60,000원 차운전석 시트로 최적!

- ◇ 용도 (공용) : 요거용, 매트용, 스트레칭, 명상수련, 활공, 휴식 등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특징 : 손으로 직접 제작한 천연제품으로 일반 나일론 제품과는 다릅니다.
- ◇ 사용 초반에는 석유 냄새가 날 수 있으나 마 특유의 냄새이므로 1주일 뒤면 냄새가 사라집니다.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